

현장실습생 안전 지킨다

전북교육청, 유정기 권한대행 반장으로 특별점검반 구성·운영

산업안전 점검표 활용 현장실습생 적응·건강상태 등 면밀히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장실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 대상은 도내 특성학교 28개교, 마이스터고 3개교 등 총 31개교다.

전북교육청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반장으로 교육국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직업계고 담당 장학사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 내년 1월까지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산업안전 점검표’를 활용에 △현장실습생의 적응 및 건강 상태 △산업안전 확보 현황 △현장실습 협약 이행 여부 △기업현장교사의 지도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날 유정기 권한대행은 김제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김제 공덕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아름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실습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공덕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아름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실습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유 권한대행은 “현장실습은 단순 업무 경험에 그치지 않고, 배움의 연장선에 있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반

드시 학생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실습 기업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실습문화를 만들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RISE사업단, 전북과학

축전서 드론축구 체험 부스 운영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17~19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19회 전북과학축전’에서 드론 축구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과학과 기술의 만남,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도내 초·중·고교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에 전주대 RISE사업단은 드론 축구 체험 부스(스카이박스)를 운영, 참가자들이 에어바운스로 만들어진 드론 축구 유소년 경기장에서 드론축구 골잡이가 돼 드론축구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전주대 한동욱 RISE사업단장은 “전북과학축전 참여를 통해 전북 청소년들에게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각되는 드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어 보람됐다”며 “지역 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RISE사업단은 2025년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에 드론축구 과제가 선정, 도내 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드론 축구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제일고 사업단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남원제일고, 진경여고, 한국치즈학교 3학년 학생 11명으로 구성된 남원제일고사업단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2025년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용, 조리, 제빵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해외 현장 경험을 통해 글로벌 직업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인턴십 기간 중 첫 2주간은 호주 국립 TAFE에서 현지 생활 및 영어 교육과 직무관련 전문 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했다. 이후 4주 동안은 각자의 전공 분야를 살려 시드니 현지 미용실, 베이커리, 레스토랑 등 협력 업체에서 실제 업무 환경을 경험했다.

특히 시드니 현지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자연스러운 영어 소통 환경과 호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키웠다. /장은성 기자



지난 18~19일 이틀 간 서울 교원챌린지홀에서 ‘IB ATL(Approach To Learning, 학습접근방법)’ 설계·활용의 이해와 실제’ 연수가 진행된 가운데, 개발자인 랜스 G. 킹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 학습접근방법 개발자 랜스 킹 초청 연수

서울·제주·전북 공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8~19일 이틀 간 서울 교원챌린지홀에서 ‘IB ATL(Approach To Learning, 학습접근방법)’ 설계·활용의 이해와 실제’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제주·전북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이번 연수에는 도내 교원 36명이 참여해 수업혁신을 위한 역량을 한층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3개 시도 교육청은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학교급·교과별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설계·공유함으로써 시도 간 협력 역량 강화 모델을 제시했다. IB 프로그램의 ATL 개발자로 널리

알려진 교육전문가 랜스 G. 킹(Lance G. King)이 강사로 참여해 △학습주도성과 메타인지 △정서적·인지적 ATL △성장 마인드셋과 회복탄력성 등 핵심 주제를 강의와 실습으로 다뤘다.

이에 연수 참가 교원들은 교과 내 ATL 설계, 동료코칭, 모의수업 등 실습 중심 활동을 통해 수업안과 평가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작하고, 상호 피드백을 나누며 완성도를 높였다.

오전과 미래교육과장은 “ATL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넘어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인가’에 답하는 전북형 수업혁신의 핵심’이라며 “연수 성과가 수업과 평가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성취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5 중등 성취평가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중등 성취평가 신뢰성·전문성 강화

전북교육청, 성취평가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성취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5 중등 성취평가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교사로 구성된 중등 성취평가 모니터링단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는 학교 현장의 성취평가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7월 광주, 전남, 전북 연합으로 이뤄진 역량강화 기본 연수에 이

어 지난 14일과 18일에는 대면방식으로 심화연수와 현장기반 실습형 연수를 실시했다.

심화 연수에서는 성취평가 모니터링 지표의 이해와 분석과 사례 기반 실습을, 현장기반 실습형 연수에서는 단위 학교의 성취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모니터링 실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강사로는 서원석(전주술대교) 교사, 박지은(경북 상모고) 수석교사 등이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8일 오후 2시 수원FC와의 ‘2025 하나은행 K리그1 33라운드’ 경기에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구성원들이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을 응원하고 있다.

전북현대와 지역 대표 브랜드 ‘동행’

전북대, 지난 주말 ‘파트너데이’ … K리그1 경기서 응원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도현)이 지난 주말 ‘파트너데이’를 통해 하나 된 열정을 보여줬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수원FC와의 ‘2025 하나은행 K리그1 33라운드’ 경기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2,000여명의 전북대 구성원들이 대거 경기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쳤다.

이 행사는 2015년 전북대와 전북현대가 체결한 상호 협력 협약에 따른 교류 프로그램으로 전북현대에는 매년 홈경기 중 하루를 전북대학교 파트너데이로 운영하며 지역 상생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뜨거운 응원 열기는 경기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사점 행사로 전북대 홍보 영상이 상영됐으며, 개교 78주년을 상징하는 등번호 78번을 단 유니폼을 입은 양오봉 총장과 구민기 총학생회장이 시축을 맡아 경기 시작을 알렸다.

또한 경기 전 전광판을 통해 양오봉 총장과 관람객 간 눈싸움 및 가위바위보 게임도 진행돼 경기장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전북대 구성원들은 전북현대의 상징인 녹색 유니폼을 맞춰 착용한 채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열정적인 응원 문화를 선보였다. 특히 전북현대가 4년 만에 정규리그 우

승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펼쳐진 경기였던 만큼 응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이날 전북현대에는 골파노와 티아고 선수의 연속골로 2대 0 승리를 거둬 조기 우승을 확정지으며 전북대학교 파트너데이에 기쁨을 더했다.

양오봉 총장은 경기 종료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한 학생과 교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다.

양 총장은 “전북대학교와 전북현대모터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명문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끈끈한 유대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더 큰 도전과 성장을 함께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 5급 승진대상자 22명 발표

식품위생 직렬 최초 선발… 내년 1월 이후 임용 발령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5급 승진대상자 22명(교육행정 21명, 식품위생 1명)을 발표했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9월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14~19일 보고서 평가, 업무실적 및 면접평가, 업무능력 우수자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5급 승진대상자 22명은 역량평가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발됐다.

5급 승진대상자로는 △교육행정직렬 강세지(충무파), 강여경(위도고등학교),

고수미(행정파), 김한철(학생해양수련원), 김형진(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박인화(전주술대고등학교), 백운기(한울학교), 소정현(부안고등학교), 손은정(전주화정초등학교), 송구(정읍고등학교), 송효미(마령고등학교), 오은진(고산고등학교), 유병현(함열고등학교), 이현미(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임인옥(예산파), 전태종(전주유화학교), 정원택(도의회사무처), 정유신(전주고등학교), 채윤경(재무파), 최관식(충무파), 허수진(예산파), △식품위생직렬 한근영(익산교육지원청) 등 총

22명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5급 승진대상자 선정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전북교육청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5급 승진대상자는 오는 11월 3일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4주간 기본교육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 등 5개 권역서 ‘2025 아이(AI)와 함께하는 캠프’

12월 6일까지 다섯차례 운영… AI 기반 진로·학습 기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10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군산·익산·남원·정읍 등 5개 권역에서 ‘2025년 아이(AI)와 함께하는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AI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진로·학습 탐험’이라는 주제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AI를 활용해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주도학습 계획

을 세워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참가 가족은 AI를 활용해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주도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 기반 성향·강점 진단 △가족 단위 AI 게임 △자기주도학습 설계 실습 등이 있다.

특히 캠프 종료 후에는 온라인(ZOOM) 후속 모임을 통해 가정 내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방

참이다.

참가신청은 권역별 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링크(구글폼)를 통해 가능하며, 각 교육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학부모지원센터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가족형 진로캠프는 미래교육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혁신 중심 대학 간 협력 강화

전주비전대, 전북권 RISE 참여 전문대 성과공유 간담회

전주비전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이근상)은 지난 17일 대화의실에서 전북권 RISE사업 참여 전문대학 성과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이근상 RISE사업단장, 군산간호대학교 이진엽 사업단장, 전북과학대학교 김한수 사업단장,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사업단

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1차 연도 사업 추진성과 점검, △2차 공모사업 대응 계획 공유,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 간 협력 모델 발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전주비전대학교 RISE사업단은 대학의 주요 추진 실적과 우수 성과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산업 수요를 만



영한 교육과정 개편,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지역 정부 여건 개선,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장은성 기자